

시멘트 · 콘크리트 관련 뉴스 및 단신



1~4월 국내 시멘트 생산량 5년 만에 최대

최근 주택건설경기 회복세 등으로 국내 시멘트 생산량이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가 한국은행 강릉본부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.

한국은행 강릉본부는 최근 발간한 지역경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1~4월 중 국내 시멘트 생산량은 최근 5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가장 많은 1,471만톤을 기록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.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%가 증가한 것이다.

시멘트의 주원료가 되는 석회석 광물의 강원지역 내 매장량 비중은 국내 전체 매장량의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. 강원지역은 풍부한 석회석 매장량을 기반으로 국내 시멘트 생산의 60% 이상(생산능력 기준)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. 그런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수요 감소로 시멘트 생산이 정체되면서 가동률이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업체간 경쟁 심화,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.

그러나 올해는 2009년 이후 최저수준을 보이는 전국의 미분양주택, 증가한 주택착공 실적, 제조원가의 30%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의 안정화 등에 의해 올해 시멘트 생산량이 전년보다 상당 폭 증가할 것으로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예상했다. (연합뉴스 6월 10일)

4월 전국 향만 시멘트물동량 전년동월대비 4.9% 증가

지난 4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향만물동량이 총1억1,515만톤으로 전년동월대비 2.5% 증가한 가운데 시멘트 물동량도 전년동월대비 4.9% 증가했다고 매일경제신문이 해양수산부 자료를 인용해 했다.

비컨테이너 물동량은 7,940만톤으로 0.5% 증가했다. 광양항, 울산항 평택·당진항, 포항항은 물동량이 늘었으나 인천항 등 나머지 항만은 대체로 감소했다. 품목별로는 시멘트(4.9%)를 비롯해 유류(1.0%), 철재(11.8%), 기계류(5.1%), 자동차(16.2%), 모래(25.9%), 목재(48.8%)는 증가했지만 광석(-3.1%), 유연탄(-1.0%), 화공품(-3.6%)은 감소했다. (매일경제신문 5월 29일)

온실가스 배출권 2017년까지 16억4,000톤

내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업체들이 2017년까지 3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이 16억4,000만톤으로 결정됐다고 한겨레신문이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. 환경부가 5월 27일 공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의 핵심인 배출 총량은 배출 전망치 17억7,000만톤에서 7.2%를 줄인 것에 불과해 2020년까지 30%를 감축하기로 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.

환경부가 결정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6월 말까지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,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(업체 전체로 12만5,000톤 이상·사업장별로 2만5,000톤 이상)을 넘어 배출권 거래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발전·철강·석유화학·시멘트 등 23개 업종 540여개 업체·사업장에 100% 무상으로 할당된다. (한겨레신문 5월 27일)